

민선4기 출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광주일보는 1일 민선 4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에 따라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광주·전남지역 27개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민선 4기 주요 공약사항과 그 실현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 광 태 광주시장

“지역경제 살리기 13만4,000개 일자리 창출 최선”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10년까지 13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천명했다. 또 박 시장은 공동혁신도시, 순환도로 민자구간 직영 문제, 도심 재래시장 활성화 등 주요 시책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날 27일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민선 4기에도 지역경제 살리기 시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는가.
▲자동차·전자·광산업 등 기존의 3대 주력산업을 더욱 탄탄히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생산도시로 만들고, 생활가전 로봇산업·노화의료 산업·차세대 전자금융산업 등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콤플렉스 조성 등 문화수도 창조, 어등산 개발·공동혁신도시 조성 등 21세

론도 들린다.
▲국제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하는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다. 특히 5·18 정신의 계승 등 관련 사업을 위해 일하고 있는 5·18선양과를 중심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5·18문제만을 다루는 ‘과’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민주·인권·평화·



박광태 광주시장이 “민선4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살리기를 통한 13만4천개의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한전 이전·문화산업 육성 3만개 일자리 무난 국제인권도시 이미지 제고 위해 조직개편 방침

기영산강 시대 개막, 글로벌 인재 양성 등도 민선 4기의 중요한 과제다. 이들 과제는 2010년까지 지역경제를 살려 13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로 집중될 것이다.
-일자리 13만 4천개 창출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도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도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 수치는) 전문가의 분석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별 고용계수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는 목표다. 우선 자동차·전자·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 육성, 첨단부품소재·디자인·신에너지·문화콘텐츠 등 4대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한전과 정부통합전선센터 등 공공기관 이전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문화산업 육성에 힘쓰면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무난할 것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남북통일대축전 등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민주·평화·인권·통일의 도시' 광주 이미지가 보다 확고해졌다고 본다.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등을 통해 현재보다 더 강화된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

통일 등 관련 사업을 보다 폭넓게 다루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시민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
-민선 3기의 성과는 지난 5·31선거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민선4기를 목표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재정 보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지하철 2호선 건설 등은 광주시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다.
▲제2순환도로 재정 보전과 관련해서는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IMF 당시에 추진된 사업이어서 금리가 10%대인데, 지금은 2~3%대 아닌가. 결과적으로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 되고 말았다. 금리를 낮추거나, 조기 인수해 광주시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행료를 낮추거나 무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또 지하철 2호선은 경전철로 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함께 버스 업체별 구조 조정에 착수하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은 노사정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단적으로 저비용의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나중에 들어서는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시도 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데, 벌써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다. 시민들이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다.
▲200만 평 개발 합의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전남지사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작은 일 갖고 시비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시·도지사가 만나면 안 될 것이 없으므로 더한 것도 합의에서 차질없이 건설되

도록 하겠다.
개발 면적을 늘리자는 등의 공식적인 제안과 논의가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혁신도시에 호수공원을 추가로 조성해 250만 평으로 하자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다. 하지만, 세계적인 도시는 강을 끼고 발전한 사실에 비해 혁신도시에 호수를 조성한다면 지적감을 끼고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동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의 모든 산업과 이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지원하는 인프라의 보배도시가 될 것이

므로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가 인근 시·군을 포함하는 220만명 이상의 메트로폴리탄이 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꿈이다.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의 활성화도 미룰 수 없는 숙제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으로 도심기능이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난해부터 도심 재래시장 활성화 등 46개 단기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11개 중장기 사업 등 57개 사업을 마련해 실행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상주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심주거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구 지역에만 총사업비 700억원을 들이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개관 이후 광주도 본격적인 전시·컨벤션산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숙박시설 등 인프라와 관련 제도 등이 아직은 열악한 게 사실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개관은 그동안 미술품 등 '예술 전시'에 머물던 지역민들의 전시에 대한 인식범위를 '산업·무역 전시'라는 국제적 개념으로 확대시킨 계기가 됐다. 특히 지난 6월 15일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는 세계적인 인권도시이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은 국제적인 컨벤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생각한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우선 광주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전시·회의산업을 전담할 수

혁신도시 호수 조성 지적강끼는 게 좋을듯 국제회의도시 필수조건 고급호텔 2개 건립

-광주천의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범구간을 개장한 뒤 우호적인 반응과 생각보다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모두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지적들이다. 앞으로 남은 구간은 생태 블록 포장, 자연초지 유지 등 최대한 자연을 살리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하지만 하천기능 회복이라는 원래의 정비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면 된다.
-5·31 지방선거 정책 자문단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 '참여예산 조례' 등 획기적인 시민참여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의했는데.
▲찬성한다. 다만 시민참여의 확대가 시의회의 권한 침해로 비칠 수 있고 조례 제정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지방자치의 성숙해 갈수록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평소 내 소신이다. 가령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예산편성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각종 위원회에 시민 참여 보장,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토론 청구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있는 민·관 합동체인 '컨벤션뷰로'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 우선 내년 말까지는 문화관광부에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행해서 2010년까지 고급 호텔 2개는 꼭 짓도록 하겠다. 특히 시민들께서 호텔 건립에 절대적으로 호응해주시고 지원해줬으면 한다.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등 복지 강화는 민선 4기에 꼭 이뤄야 할 과제가 됐다. 하지만 복지 예산 증가, 전문인력 양성 등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대책은.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복지공공체 실현이 당연하다. 하지만 재정의 확보 없이 질적·양적 복지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저소득 계층의 자활의 지고취, 노인들의 건강한 삶 보장 등에 재정력을 집중하겠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장애인 전문재활병원 건립·가정위탁지원센터와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건립 등에도 힘을 모아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
/김정주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 올림픽파크 동쪽 800주년 기념 광주 올림픽파크 울림바타르. Includes a large image of a person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and a map of the park area.